

어마어마 스퍼트나, 이스트제트 선행이나

〈외산마〉

〈국산마〉

어마어마,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혀 이스트제트, 최근 역전패배 설욕전 라온더파이터 1군데뷔…반전 노려 절치부심 모르피스, 명예회복 벌러

20일 단거리 최강자를 가리는 ‘서울마주협회장배’(GⅢ, 1200m)가 한국마사회 서울 경마공원에서 열린다. 단거리 경주는 1분10여 초의 짧은 레이스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절대 강자도, 우승 공식도 없는 경주다. 어마어마가 우승후보로 주목받는 가운데 주요 출전마와 관련 포인트를 소개한다.

●어마어마(수, 4세, 미국, 레이팅 127, 승률 83.3%, 복승률 91.7%)

데뷔 때부터 명성이 높았던 어마어마는 1년 만에 열린 대상경주인 10월 ‘SBS 스포츠 스프린트’에서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었다. 가장 바깥쪽 게이트에서 출발해 코너를 외곽으로 크게 돌았음에도 경주 내내 선형그룹으로 달렸고 직선주로에서는 1마신 이상 앞서있는 이스트제트를 결승선 100m 전부터 따라잡는 엄청난 기세의 종반 추입을 보여줬다. 이번 경주는 지난 경주에서 약조건으로 작용했던 변수들이 사라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라온더파이터(수, 3세, 한국(포), 레이팅 90, 승률 100%)
유일한 3세 출전마다. 지난해 11월 데



20일 ‘서울마주협회장배’에서 최강의 우승후보로 주목 받고 있는 어마어마의 경주 모습.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는 어마어마지만 변수가 많은 단거리 경주만큼 경쟁마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뷔 후 출전한 모든 경주에서 2위와 대차를 벌리며 압도적 기량으로 연승을 기록한 끝에 불과 7회 출전 만에 1등급으로 승급했다. 마치 지난해 어마어마를 떠올리게 하는 활약상이다. 특히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모두 우승하며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서울마주협회장배’는 1등급 데뷔전이다.

●모르피스(거, 6세, 미국, 레이팅 130, 승률 32.3%, 복승률 54.8%)
직전 경주였던 ‘SBS스포츠 스프린트’에서 디펜딩 챔피언으로 큰 기대를 모았

지만 출발 직후 주향방해로 초반 흐름을 뺏기며 후미로 밀렸다. 추입의 귀재답게 막판 기세를 올리며 역전을 노렸으나 결국 5위에 그쳤다. 6세로 출전마중 가장 나이가 많지만 단거리 강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 경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8월 60kg의 부담중량에도 11초대의 펄롱타임(1F-G)을 보여준 기세를 다시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이스트제트(거, 4세, 한국, 레이팅 122, 승률 60.0%, 복승률 80.0%)
국산마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경주마

다. 선행 작전이 특기인 디펜딩 챔피언이다. 지난해부터 단거리 대상경주에서 동갑 외산마 어마어마와 경쟁구도를 벌치고 있다. ‘SBS스포츠 스프린트’에서도 결승선 직전까지 선행을 유지하다 어마어마에게 반마신차 역전을 허용하며 2위를 했다. 당시 번 게이트라는 행운이 따라왔기에 마지막 간발의 차이로 우승을 놓친 것이 더욱 아쉬움을 남겼다. 베테랑 노장 기수 면로와 꾸준히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이번에 지난 경주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마사회, 현혈 활성화 공로 ‘대한적십자사 표창’

한국마사회가 현혈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 기념’ 현혈 유공 표창 대상자에 선정됐다. 한국마사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4회에 걸쳐 임직원 단체 현혈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혈 참여 캠페인 시행, 현혈 공개 도입 등을 통해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자 2월과 5월, 7월, 그리고 10월 분기별로 임직원 단체현혈을 실시해 148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이 바로마켓 입점농가와 함께 16일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마사회, 바로마켓 입점 농가와 김장 나눔

한국마사회는 바로마켓 입점농가와 함께 16일 서울 경마공원 야외 행사장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시행했다. 마사회 임직원을 비롯해 바로마켓 운영사인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바로마켓 자치회 등 봉사자 약 30명이 참여했다. 이날 담근 650kg의 김장김치는 과천시 노인복지관에 전달됐다. 한편, 바로마켓에서는 12월 1일까지 매주 화, 수요일에 배추, 양념 등 김장 전 품목에 걸쳐 최대 30% 할인을 제공하는 ‘김장대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화학회 저널, 마사회 ‘코발트 연구’ 소개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가 실시한 도핑금지물질 코발트에 대한 연구가 영국화학회의 SCI급 저널에 소개됐다. 코발트는 산소운반능력을 높여 운동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금속물질이다. 국제협약에 따라 운동선수나 경주마 대상 도핑금지물질로 지정됐다. 하지만 비타민 B12에 포함되어 있는 등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이어서 인위적으로 투여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가 까다롭다. 마사회 도핑검사소의 광역범 과정(주지자)과 유준동 부장(교신지자)은 경주마의 혈액 내 농도 변화를 추적하며 코발트 함유방법 및 투여 경로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인위적 도핑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완성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마사회 “승용마 시장 투명·안정성 강화” 서울경마공원 ‘안전보건경영’ 국제표준 등급 유지

레저말·경주퇴역마 통합 첫 품평회

한국마사회는 15일과 16일 ‘승용마 통합 품평회’를 실시했다. 이어 17일에는 통합 품평회와 연계한 ‘제6회 스포츠말 품평회’도 진행했다.

경북 영천시 운주산 승마장에서 진행된 이번 품평회는 그동안 레저말 부문과 경주퇴역마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품평회를 하나로 통합한 첫 행사다.

15일 열린 경주퇴역 승용마 부문에서는 서러브레드 중 21두가 참가해 마체검사와 천착성, 마장마술, 장애물 등 승용마로 필요한 조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1위는 부경볼트, 2위는 서울달빛, 3위는 진주짱(더킹클래스)이 받았다. 이날 총 10마리의 경주 퇴역마들이 BRT(Best Retired Thoroughbred) 인증을 받았다. 마사회는 BR

T 인증마 이력 관리를 지원해 승용마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레저말 평가를 실시했다. 승용마로 등록된 국산 2세부터 7세까지의 말과 포니 종을 대상으로 참가자가 기승하지 않고 평가받는 미기승마 평가와 참가자가 기승해야 참가할 수 있는 기승마 평가로 나누어 실시했다. 미기승마 평가에는 21두가 응시해 13두가 합격했으며 45두가 참가한 기승마 평가는 36두가 등급을 받았다. 17일에는 2세부터 3세까지 국산 어린말을 대상으로 장애물 스포츠 적성과 자질 평가를 위한 제6회 스포츠말 품평회를 진행했다. 44두(말 28두, 포니 16두)가 출전해 체형과 보행, 프리점핑의 세 가지 과제로 평가를 받았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마사회, 전담조직 운영 성과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은 산업안전공인기관으로부터 자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해 국제표준인 ‘KOSHA-MS, ISO 45001’ 등급을 유지하는 판정을 받았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도록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국내외 인증기관들이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인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마사회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 안전 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개선 조치했다.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한국마사회의 사업장 점검 모습.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그 결과 서울경마공원은 2020년 국내표준에서 ‘KOSHA-MS’로 전환 인증을 획득했다. 국제표준도 ‘ISO-45001’로 전환 인증을 받았다.

송철희 한국마사회 회장 직무대행은 “내년 2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한층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르만 로맨스, 마블 꺾고 박스오피스 1위

‘이터널스’ 제치고 흥행 돌풍 韓영화 8주 만에 정상 올라

감독으로 나선 배우 조은지가 마동석을 제치고 한국영화 ‘반격’의 선봉에 섰다. 한국영화가 이에 힘입어 감염병과 할리우드 대작에 맞서며 본격적인 관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18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를 보면 조은지가 연출한 ‘장르만 로맨스’가 개봉 첫 날인 17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이날 하루 42000여명을 불러 모아 마동석과 안젤리나 졸리 등이 주연한 마블스튜디오의 슈퍼히어로물 ‘이터널스’(3만4000여명)를 제쳤다. 한국영화가 흥행 1위에 오른 것은 추석 시즌 개봉한 ‘보이스’가 9월28일 정상에 오른 이후 약 8주 만이다.

또 ‘강릉’과 ‘연애 빠진 로맨스’가 각각 5위와 7위, ‘기적’이 9위를 차지했다. 실시간 예매율 순위에서도 18일 오후 4시30분 현재 15.7%의 ‘장르만 로맨스’가 간발의 차로 ‘이터널스’(14.0%)를 따돌리며 1위인 가운데 24일 개봉작 ‘유체이탈자’와 ‘연애 빠진 로맨스’, 12월1일 선보이는 애니메이션 ‘태일이’ 그리고 ‘강릉’ 등 5편의 한국영화가 10위권에 포진했다.

이 같은 선전은 최근 침체에 빠졌던 한국영화에 새롭게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내놓은 10월 영화산업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달 총 극장 관객 519만명 가운데 한국영화는 불과 83만명이 관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73만명이나 줄어든었다. 감염병 확산 여파로 개봉을 미뤘다 10월 선보인 ‘007 노 타이



배우 류승룡과 김희원(왼쪽부터)이 주연한 ‘장르만 로맨스’가 개봉 첫날인 17일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영화는 배우 조은지가 연출해 관객의 호기심을 얻고 있다.

사진제공 | NEW

투 다이’와 ‘베놈2:렛 데어 비 카니지’, ‘뿔’ 등 할리우드 대작이 관객의 시선을 차지했다.

하지만 ‘장르만 로맨스’를 비롯한 한국영화가 다시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오르면서 활력을 얻고 있다. 다만 12월 이후 ‘고스트 버스터즈 라이즈’,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 ‘매트릭스:리저렉션’, ‘킹스맨:퍼스트 에이전트’ 등 할리우드 대작의 성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윤여수 기자

190개국에 ‘지옥’이 펼쳐진다

흥행 기대감 속 오늘 넷플릭스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이 19일 전 세계 190개국(지역)에서 선보인다. 이를 앞서 영국 BBC 등 해외 언론매체들이 리뷰 등을 통해 호평하며 성과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지옥’은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유아인·박정민·김현주 등이 주연한 작품이다. 지옥의 사자들에게 의해 공포와 혼돈의 세상에 내몰린 이들의 이야기이다. 초자연적 현상과 종교를 소재 삼아 장르의 색채를 평가받고 있다.

이에 영국 BBC는 ‘지옥’을 ‘11월 주목할 만한 신작 드라마’ 중 한 편으로 꼽았다. 세계 각국의 새 작품 가운데 10편을 선정한 BBC는 “흥행작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의 매력적이면서도 섬뜩한 드라마”라고 소개했다. ‘지

옥’이 올해 9월 캐나다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도 선보인 가운데 “커져가는 한 나라의 불안감에 대한 독창적인 논평”이라는 제프 맥노튼 프로그래머의 평가도 인용했다.

흥풍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18일 ‘2021년의 최고 TV프로그램’ 가운데 한 편이라며 ‘지옥’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 매체는 “어둡고 매혹적”인 작품이라며 “거대한 반전과 인상적이고 빠른 전개, 독특한 내러티브”를 미적으로 꼽았다.

이 같은 호평에 힘입어 ‘지옥’이 ‘오징어게임’에 쏟아진 전 세계적 시선을 이어받을지 관심을 모은다. BBC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또 다른 한국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이어 ‘지옥’은 이미 치솟고 있는 한국의 TV·영화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